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11월 5일(주일) 제1465호



사진은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패널 토의.

인구문제 극복, 교회가 희망이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리더십 및 성도 참석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 차원의 실제적 실천 방안 강구

‘교회가 희망이다.’ 지난 10월 28일(토) 열린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이하 OFFC)에서 얻은 결론이다.

OFFC는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 차원의 실제적 실천 방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였다. 온누리교회 리더십 및 성도 408명이 참석했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는 사전 강의, 주제 강의, 패널 토의,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성경적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및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 강의에서 최영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는 ‘이 시대 결혼

및 출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 이정민 교수(한동대)는 ‘성경적 자녀교육’, 신무한 장로는 ‘인구절벽, 성경적 세계관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근본 원인과 해결을 위한 주제 강의도 이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인구문제, 영적 각성 및 의미’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목사는 “저출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종교는 교회뿐”이라며, “교회만이 저출산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이철 장로는 “대한민국 인구문제와 교회 차원의 문제 해결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장로는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여러 가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성 집사는 지난 6월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문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 및 발표했다.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의 실제적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패널 토의도 이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 이철 장로, 민준호 대표, 하선희 집사, 최성민 목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성경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1등 8조(윤현규, 석다혜), 2등 5조(이수현, 정규원), 7조(송지나, 이한나) 등이 입상했다.

정찬중 형제(여호수아공동체)는 “생각했던 것보다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현실적인 대안이 많아서 걱정이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관련기사 4-7면). /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기자

이제 ‘이재훈 위임목사’라고 부름시다

지난 10월 22일(일) 온누리교회 정관 개정안이 공동의회를 통과하였는데, 이 개정안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헌법과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을 포함하여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휴무규정을 두어서, 필요 시 외부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재훈 목사를 위임목사로 호칭하게 된 것입니다.

2012년 개정된 장로회 헌법에는 3년의 임기로 청빙된 목사를 담임목사로, 정년을 보장하며 청빙한 목사를 위임목사로 구별합니다. 이재훈 목사는 2011년 당시 이미 위임목사로 청빙되었고, 노회의 승인하에 위임예배를 마쳤기 때문에 신분상 위임목사였으나 호칭은 관례대로 담임목사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교단 헌법상 담임목사는 3년 임기로 재선임으로 갱신이 필요한 직책이 아니 위임목사로 불리워져야 혼동이 없기에 호칭 상으로도 위임목사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위임목사로 부르게 되나 성도님들께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기에 담임목사로 호칭하셔도 무관합니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창립 19주년

남양주온누리교회가 11월 5일(일) 창립 19주년 감사예배를 오전 9시(1부)와 11시 30분(2부) 본당에서 드린다. 이기복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 담당) 설교, 특순, 축복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남양주온누리교회는 2004년 11월 7일 국내 다섯 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다음세대를 키우는 교회, 다문화가정의 친구가 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기복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 담당)는 “지금 남양주온누리교회는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음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다문화가정을 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새 예배당은 2024년 4월 건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한국로잔위원회, 2023년 제4차 선교적 대화

한국로잔위원회가 ‘2023년 제4차 선교적 대화’를 개최한다. 11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순종하는 신앙: 로잔운동, 지상대위임령, 종제적 선교’를 주제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2023년 제4차 선교적 대화’에서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랭햄 파터너십 국제 대표)가 강의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제3차 로잔대회 신학위원장으로 케이프타운 서약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번 강의에서 ‘지상대위임령’과 ‘종제적 선교’를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관점에서 풀어낼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하단 QR 코드로 접속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 로잔운동에 동의하고, 로잔운동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2023 엔젤트리’ 대상자 모집

11월 24일까지 홈페이지 및 목회지원실

사회선교본부에서 ‘2023 엔젤트리’ 대상자를 모집한다. 11월 24일(금)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하단 QR 코드, 목회지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엔젤트리 대상자는 온누리교회 공동체, 직장, 이웃, 가족 중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선정하면 된다. 엔젤트리 대상자 모집 신청서는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만 작성할 수 있다. 엔젤트리 대상자 모집 신청서에 이웃의 정확한 주소와 사연, 받고 싶은 선물과 연락처 등을 기록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의 이름, 소속공동체 및 다락방, 연락처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웃에게 전달하고 싶은 선물은 5만 원 이하(옷,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2023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5일(토)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 게시할 예정이다. 캠퍼스는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엔젤트리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전달하는 운동이다. 미국 교회들이 재소자 자녀들에게 성탄 선물을 준 것에서 유래했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엔젤트리 사연 신청 QR〉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믿음이란 세상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도록 제정하신 성만찬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 한복판에서, 더 나가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매일 발생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이삭은 믿음으로 머물렀다!**

세상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일이 다툼입니다. 마땅히 다투야 할 문제도 있고, 다투지 말아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상황에서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당연히 다투야 한다고 여기는 일을 다룬다고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서와 아곱을 양육하는 일에서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아곱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믿음이 또 다른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 맞춰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믿음이 약할지라도 또 다른 영역에서는 강한 믿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준 언약을 지키심으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부강해졌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

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12~13절).

이삭이 부유해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견제를 받게 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고,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다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삭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삭만이 보이는 믿음의 모습, 아브라함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삭이 가진 믿음의 장점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그 랐던 것처럼, 흉년이 들지 않은 땅을 찾아가는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가나안 땅 남부 지역, 이집트와 가까운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지역이 그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 남부 지역, 이집트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셔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을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일러 주는 땅에서 살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게 복을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순종하고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우르를 떠날 것을 명령했고, 이삭에게는 그대로 머물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이삭은 믿음으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땅, 그 지역, 그 영역 안에 머무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떠나서는 안 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을 먼저 애굽에 종으로 보내 총리까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의 70여 명 되는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번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는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떠나면 안 됩니다. 기근이 왔다고 떠나면 안 됩니다. 기근 속에서도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게 하심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물을 팎으로써 기근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땅을 개발하는 아이디어와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이삭 믿음의 장점, ‘온유함’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떠나라고 하는 곳으로 떠날 때 복이 임합니다. 복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않는 것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할 때 머물지 않고 떠나는 것도 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고 머물렀습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기와 견제를 받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고약하게 이삭의 종들이 팎던 우물을 덮어버림으로써 타격을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들이 복을 받을 때 시기하는 이들의 견제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견제와 공격을 허용하심으로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과 동일한 태도로 복수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처럼, 이삭도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과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영적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변 사람과 다툼 없이 하나님께 온 복을 누렸습니다.

이삭이 속임수를 쓰지 않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 역시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도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떠나 달라고 요구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요구에 따라 그랄 골짜기로 가서 진을 치며 머물렀습니다. 옮길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준 것입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봤더니 또 신선한 새 물을 발견했습니다. 또다시 그 지역 양치기들이 우물이 자신들의 거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삭은 또다시 그 우물을 내어 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팎습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양보하며 새로운 우물을 파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나타난 믿음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약한 자’, ‘겁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자신을 끌고 가는 이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셨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온유함을 유약함으로 여깁니다. 물론 마땅히 다투야 하는 정당한 다툼까지 피하는 기질이라면 유약한 겁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룰 수도 있지만 더 넓은 마음, 하나님의 온유한 태도로 새로운 길을 택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것 또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다툼을 피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저도 이기는 삶이 있고, 이겨도 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다투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 원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네 가지 인생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다툼 그 자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만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피하며 새로운 우물들을 파지 않고, 우물을 차지하려고 다뤘다면 우물은 차지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우물에서 마시는 물은 생수가 아니라 미움과 욕심에 물이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빌 2:14-15).

우리가 다툼에 휘말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다툼을 걸어오는 이가 없을 때까지 양보해야 합니다. 이삭이 언제까지 계속 양보하며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까? 싸움을 걸어오는 이가 없을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유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강건함입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22절).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지경까지 양보하고 피하며 새로운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이삭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걸어오는 이가 없을 때까지 다툼을 피하고 양보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유약함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강건함입니다.

셋째, 다툼을 피하고 양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이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 때까지 양보한 이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해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24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게 복을 주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 온 것입니다. 피하고 양보하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기적인 태도로 가득한 사람은 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양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손해 보고, 희생하고, 양보할 때입니다. 자존심과 이기심, 내 권리를 내 세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1997년, 제가 차세대 사역할 때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린 이삭처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목표는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을 불편하게 만들자’였습니다. ‘우리들도 살아 있다’,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장비들을 빌려서 5월 첫 주일에 축제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문제는 그 값비싼 장비들을 그냥 두면 분실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역자와 함께 준비를 마치고

나서도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밤을 새서 지켜야 했습니다. 제가 지키겠다고 해서 모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새 보초를 섰습니다. 이슬을 맞으면서 꼬박 밤을 섰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아침 너무 추워서 목욕탕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내가 너 잘 해줄게’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음성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그 음성이 제가 밤새 희생한 일 이후에 왔습니다.

이삭이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때까지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잘 해줄게. 내가 너 복 주고 번성하게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편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이삭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었습니다.

넷째, 이삭과 같이 믿음의 태도로 다툼을 피하는 성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 주고 평화롭게 보내 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28~29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툼을 피하고 승리하는 인생

두 번씩이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인근이긴 하지만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옮겼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예

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무엇인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반응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믿음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변 사람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홉사와 군대 사령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잘 봐 주십시오. 당신과 좋게 지내고 싶습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의미입니다.

정반대로 최악의 비난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려면 절대 안 믿겠습니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삭처럼 부유하게 해 주시면 다투지 않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기를 기다립니다. 먼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다툼을 피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저도 이기는 삶이 있고, 이겨도 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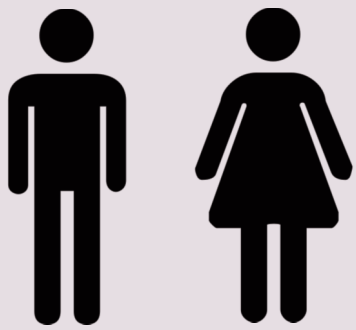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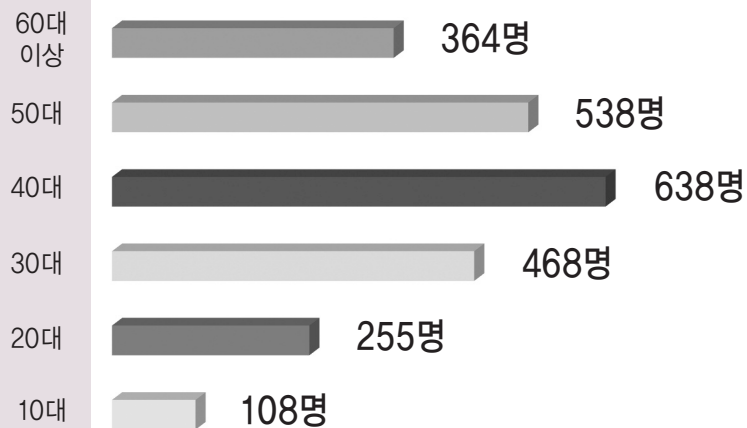
온누리 인구문제 설문 조사 결과(2,382명 응답)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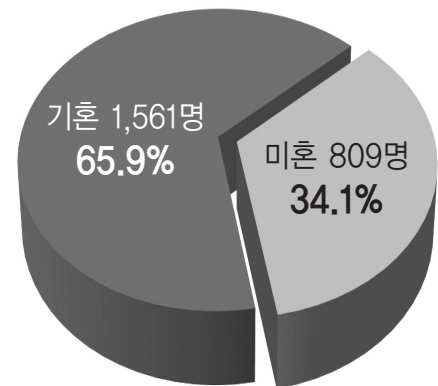


남성 922명 39.1%
여성 1,439 60.9%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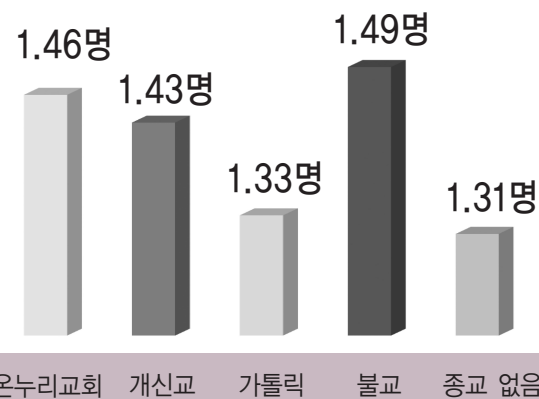
결혼 여부



기혼자의 자녀 수



■ 없다 169명 10.8%
■ 1명 369명 23.7%
■ 2명 831명 53.3%
■ 3명 이상 189명 12.1%

기혼자 자녀 수 개신교 및 타 종교와 비교
(20~49세 그룹 기준)

기혼자의 육아에서 어려웠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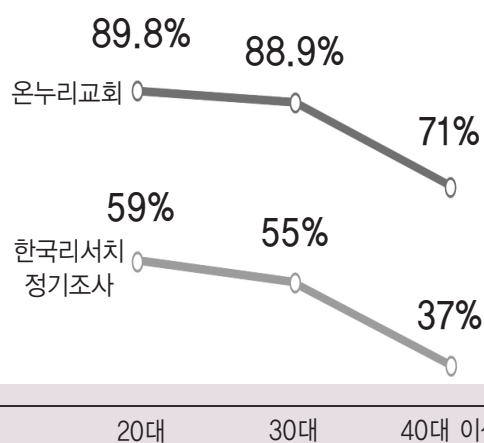
자녀 돌봄의 어려움
61.2%

높은 교육비
40.8%

경제적 여건
34.4%

경력 단절
17%

미혼자의 향후 결혼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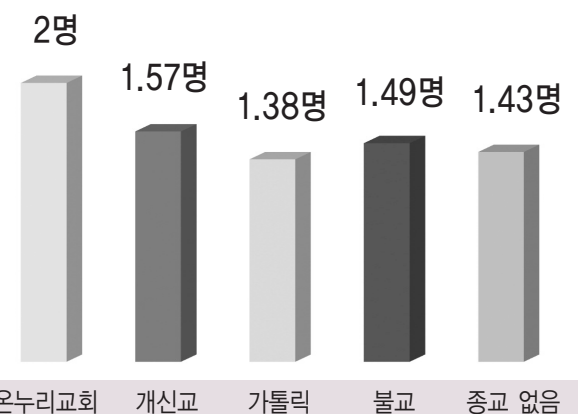


미혼자의 결혼 후 자녀 계획



■ 없다 44명 5.8%
■ 1명 96명 12.7%
■ 2명 383명 50.9%
■ 3명 이상 120명 15.9%

미혼자의 향후 자녀 수 개신교 및 타 종교와 비교



저출산의 원인

과도한 육아 및 교육 비용 70.2%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63.9%
자녀 없는 삶을 즐기려는 가치관 확산 53%
사회의 물질 중심 주의 42.7%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자녀돌봄에 대한 서비스 확대 64.9%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56.9%
주거 지원 52.9%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지원 43.8%

온누리교회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 67.5%
양육에 대한 실제적 도움 제공 59.1%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44%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설교 34.3%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온누리 인구문제 설문 조사 분석 및 시사점

“저출산 문제, 신앙으로 해결해야 한다!”



박태성 집사
(미래성장위원회)

지난해 5월 온누리교회 미래성장위원회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일임을 인지하고, 매월 저출산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난제에 대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성경적 대안과 교회의 실천 방안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인구문제 전문가와 설문 조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종 설문을 완성했다. 최종 설문은 총 31개의 문항으로 다섯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션 1 인구통계에 대한 문항(7문항), 세션 2 기혼자 대상 문항(6문항), 세션 3 미혼자 대상 문항(13문항), 세션 4 저출산 대책에 대한 문항(3문항), 세션 5 기타 문항(3문항)이다.

인구통계 분석

성별에 대한 응답자는 총 2,361명이었는데, 남성 922명(39.1%), 여성 1,439명(60.9%)이었다. 연령대 응답자는 10대 108명, 20대 255명, 30대 468명, 40대 638명, 50대 538명, 60대 이상이 364명으로, 40대가 가장 많이 응답했다. 온누리교회 출석 연수는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비율이 20% 내외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온누리교회 캠퍼스별 응답자 분포는 총 응답자 2,367명 중에서 양재온누리교회 1,018명(43%), 서빙고온누리교회 825명(34.9%), 인천온누리교회 181명(8%) 등의 순이었다. 신앙생활 연수는 40년 이상 744명(31.4%), 30~39년 584명(24.7%), 20~29년 457명(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5.4% 정도가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신앙단계를 성숙도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눈 문항에는 2,368명이 응답했다. 1단계 98명(4.1%), 2단계 621명(26.2%), 3단계 1,118명(47.2%), 4단계 531명(22.4%) 순이었다. 신앙단계 분포를 연령대별, 신앙생활 연수별, 온누리교회 출석 연수별로 살펴보면 3단계와 4단계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앙단계별 성비는 남성 40% 정도, 여성 60% 정도로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결혼 여부에는 총 2,370명이 응답했는데 미혼 809(34.1%), 기혼 1,561명(65.9%)이었다. 성별로 결혼 여부를 살펴봤더니 총 응답자 2,355명 중에서 남성 기혼 비율 70.8%, 여성 기혼 비율 62.7%로, 남성이 8% 정도 높았다. 기혼자 중에서 여성 비율 58%, 미혼자 중에서 여성 비율 66.5%로, 미혼 여성 비율이 8% 정도 높았다.

기혼자 응답 분석

성별에 대한 총 응답자는 1,551명이었다. 남성 651명(42%), 여성 900명(58%)이었다. 기혼자에게 초혼 나이를 물었더니, 20대 후반 548명(35.2%)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30대 초반 477명(30.6%)이었다. 초혼 평균연령은 30.5세였다. 기혼자의 자녀 수에 대한 응답자는 1,558명이었는데, 자녀 2명이 831명(53.3%)으로 가장 많았다. ‘3명 이상’의 응답을 3.5로 간주하고 구한 평균 자녀 수는 1.73명이었다. 연령대가 20~49세 그룹에서는 평균 자녀 수가 1.46명으로 전체 평균 자녀 수보다 낮았다. 이 결과는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 설문 조사에서 밝힌 동일 연령대 개신교인의 자녀 수 평균인 1.43명과 유사했다. 향후 추가 자녀 계획은 전체 연령대에서 평균 0.16명 자녀를 계획하고 있었다. 20~49세는 0.36명이었는데, 목회데이터연구소 설문 결과 0.37과 유사했다. 동일 연령대에서 현재 자녀 수와 향후 계획 자녀 수를 합한 값은 1.82명으로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조사한 개신교인의 총 자녀 수 1.79와 유사했다. 20~49세 연령대의 신앙단계별 현 자녀 수를 조사하면 1단계 147명, 2단계 132명, 3단계 144명, 4단계 167명으로 나타났다. 1단계 표본 수가 15명으로 매우 작아 이 표본을 제외하면,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녀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앙단계별 추가 자녀 계획은 1단계 0.13명, 2단계 0.28명, 3단계 0.31명, 4단계 0.57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육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녀 돌봄(1순위), 높은 교육비(2순위), 경제적 여건(3순위), 경력 단절(4순위) 순이었다. 같은 문항을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그룹으로 나눠 비교하면 ‘자녀 돌봄’이 50세 미만에서는 73%, 50세 이상에서는 52%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여건’도 각각 41%와 30%, ‘경력 단절’ 25%와 1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미혼자 응답 분석

미혼자 응답자 총 1,073명 중에서 남성 269명(33.5%), 여성 804명(66.5%)이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여성 미혼자 비율이 50%에서 계속 증가해 70% 이상 높았다. 미혼자 결혼 의사는 82.4%(‘조금 있음’ 17.6%, ‘확실히 있음’ 64.8%)가 나왔다. 이 수치는 한국리서치가 ‘2023 결혼 인식조사’에서 밝힌 것보다 연령대별로 30% 이상 높았다. 온누리교회의 미혼 청년들은 일반 미혼 청년들과 비교해서 결혼 의사가 매우 높았다. 미혼자의 예상 결혼 시기는 30대 초반이 가장 많았고, 평균은 30.2세였다.

향후 몇 명의 자녀를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2명(50.9%), 3명 이상(15.9%), 1명(12.7%) 순이었다. ‘3명 이상’의 응답을 3.5로 간주하고 향후 자녀 수의 평균을 구하면 1.9명이었다. 최

근 목회데이터연구소 설문 조사에서 밝힌 개신교의 향후 자녀 수 평균인 1.57명보다 높았다. 가톨릭 1.38명, 불교 1.49명, 무교 1.43명보다 훨씬 높았다. 육아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여건(1순위), 자녀 돌봄(2순위), 높은 교육비(3순위), 배우자의 낮은 육아 참여도(4순위) 순이었다. 동일 문항의 미혼자와 기혼자의 응답을 비교하면 미혼자는 ‘경제적 여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상하고, 자녀를 키우는 기혼자는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경력 단절’은 미혼자의 경우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기혼자는 심각하게 겪는 어려움 중 하나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결혼 의사가 없는 이유는 ‘적당한 배우자가 없어서’ 1위, ‘결혼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서’ 2위,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3위였다.

저출산 응답 분석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과도한 육아 및 교육비용’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여성이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자녀 없는 삶을 즐기려는 가치관 확산’의 순이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온누리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신앙교육’, ‘가치관 교육’, ‘세계관 교육 및 캠페인’이 1위, ‘자녀 양육에 대한 실제적 도움 제공’이 2위,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3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설교’, ‘결혼 상대 매칭 프로그램’, ‘미혼모에 대한 실제적 도움’ 등이 있었다. 이 해결책을 20~49세 미혼자와 기혼자를 나눠 비교했더니 1위와 2위는 같았는데, 기혼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미혼자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설교’와 ‘결혼 상대 매칭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교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강조한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설문조사에서 밝힌 개신교의 65%보다 낮지만, 가톨릭 41%, 불교 17%보다는 높다. 온누리교회가 결혼과 출산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누리교회에 출산 증가를 위한 활동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 25.7%만 ‘있다’고 응답했다. 온누리교회에 출산 증가를 위한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지를 물었는데는 응답자 83.6%(‘가끔’ 49.2%, ‘자주’ 34.4%)가 가르치고 있었다. 신앙단계가 높을수록 이 비율이 33%, 63%, 80% 이상으로 증가했다. 온누리교회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74.6%(‘약간 그렇다’ 32.6%, ‘매우 그렇다’ 4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2.9%(‘약간 그렇다’ 28.8%, ‘매우 그렇다’ 54.1%)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가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63.5%를 차지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은 1위, ‘자녀 돌봄에 대한 서비스 확대’ 2위,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3위, ‘주거지원’ 4위,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 분석

교회 직분에 따라 리더십 그룹과 일반성도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리더십 그룹에서 신앙단계가 더 높게 나타났고, 기혼자의 현 자녀 수도 1.8명으로 일반 성도 현 자녀 수인 1.54명보다 높았다.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도 리더십 그룹에서 더 자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을 5단계로 나눠서 비교했는데, 기혼자의 현 자녀 수와 미혼자의 향후 자녀 수가 ‘U자’ 형태를 보여 경제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결론

이번 설문 조사는 구글폼을 활용해서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따라서 해석을 일반화하는 데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예상보다 고연령대 참여도가 높고, 청년들의 참여도가 낮아 전체 연령대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양재온누리교회와 서빙고온누리교회의 설문 조사 참여도가 다른 캠퍼스에 비해 훨씬 높아 이 결과가 온누리교회 전체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설문 조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성경적 대안과 교회의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수행한 설문 조사와 같은 공식적인 결과를 참조해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개신교 및 다른 종교와의 체계적인 비교 작업도 할 수 있었다.

본 설문 조사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신앙교육’, ‘가치관 교육’, ‘세계관 교육 및 캠페인’을 1순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상처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안이다. 온누리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 제안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고,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온누리교회 미혼자들의 높은 결혼 의사와 높은 예상 자녀 수는 온누리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저출산 문제는 결국 신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이 확고해졌다.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온누리교회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소강의 1

이 시대 결혼 및 출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

갈수록 결혼하기가 어려워지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왜 결혼하지 않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과 현실적인 문제와 장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좋은 가정의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한

청년에게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결혼한 선배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거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자신이 경험했던 힘든 가정과 시간을 자녀에게 경험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좋은 롤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독신 가정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좋은 가정을 꿈꾸지 못하고, 가정의 비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세계관이 변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표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청년들의 세계관을 흔들고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와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은 좋은 가정의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롤모델이 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공감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청년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결혼으로 주제가 좁혀집니다. 대학부 52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

는다’ 428명, ‘결혼과 출산에 대해 생각이 없다’ 57명,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41명, ‘결혼을 안 하고 싶다’ 3명 순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만큼 결혼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좋은 만남을 갖게 해 줄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결혼할 수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고민도 해야 합니다.



최성민 목사
(대학청년본부장)

소강의 2

성경적 자녀교육

이 시대 가치판단 기준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도시화를 통해서 가속화됩니다. 도시화는 제조와 상업을 목적으로 사회가 재편되는 것입니다.

도시화가 가속화 하면서 세속화를 가져왔습니다. 세속화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화 된다는 것은 더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때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와 존재의 깊이 등이 쓸모없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설명하는 단어는 ‘기능’과 ‘효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가 우리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기능과 효용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적 자녀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부모가 성경적 자녀교육을 생각할 때도 ‘기능’과 ‘효용’이 은연중에 들어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전교 1등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부모, 자녀, 교회를 혼

드는 방식입니다.

공부는 왜 해야 할까요?

첫째,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까지 지력을 높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지력이 높아집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력을 높일 수 없습니다.

둘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충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장 힘들고, 짜증 나는 일을 이를 악물고, 울며불며 할 때 충성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는 절망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이 공부입니다. 절망을 이겨낼 때 안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

공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지력을 높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넓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셨습니다(엡 1:6).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넓히는 도구로 존재합니다. 그것을 위해 공부하는 자녀와 부모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는 영광의 찬송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정민 교수
(한동대학교)

소강의 3

인구절벽, 성경적 세계관으로 답하다

그리스도인이 ‘인구절벽’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사회적 현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가 줄고 있고,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 인구는 2012년 이후부터 줄고 있고, 인구감소 비율도 높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훨씬 긴 유럽

을 살펴보면, 낮은 출산율로 인해 쇠퇴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세속적 세계관에 의해 퇴보된 것도 쇠퇴한 이유입니다. 국가 인구감소는 교인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인구 문제를 진단하면 첫째, 국가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경쟁 심화 사회가 돼서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둘째, 종교성이 강한 경우 인구감소 현상이 억제됩니다. 셋째, 정책 및 사회적 압력으로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인구감소 해결책은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입니다.

인구 현상을 세계관적 관점으로 들여다보

면 인본주의와 사회진화론을 보게 됩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의 기본 사상은 자연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스며든 사회는 개인주의를 필수밖에 없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파생된 사회진화론에는 힘과 경쟁이 사회를 이끈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하면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약육강식의 경쟁 사회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합니다.

〈창세기〉1장 26~28절을 보면 출산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고, 출산은 복의 확장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22장 17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군사의 확장,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창조질서로 본 인구절벽의 원인은 하나님

의 명령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적 거룩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고, 자녀를 통한 축복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도 원인입니다.

인구절벽에 대한 성경적 대응은 ‘성경적 세계관 바로 세우기’, ‘가족의 중요성 가르쳐 주기’, ‘결혼을 장려하는 문화 형성’, ‘결혼한 자녀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등이 있습니다. 생명존중 운동, 입양 장려하기 등 그리스도인이 가정의 울타리를 넓혀가고, 세속 문화를 극복하는 것도 성경적 대응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복잡하고 어지럽지만,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답습니다. 창조원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근원적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무환 장로
(서빙고공동체, 연세대학교 교수)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주제 강의 1

인구문제, 영적 각성 및 의미

우리나라가 왜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쟁 사회에서 살며 ‘인생의 실패’라는 의식이 자리 잡아서 자신의 자녀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결혼에 대한 반감과 자녀에 대한 기대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이 매우 중

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 현장이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교육이었습니다. 정부가 공립학교를 운영하지 못할 때, 교회에서 세운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평준화’라는 틀 속에 자율성과 창의성, 그 학교만의 독특한 건학이념이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존중받는 학교가 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평준화 정책 때문에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어졌습니다. 꿈을 길러야 할 아이들

이 경쟁심에 눌려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이 의무 교육을 끌어 올렸지만, 교육의 질이 추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가정과 출산을 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고, 삶이 불행해집니다. 현재 교육부의 여러 정책 방향은 물줄기 안에 있는 돌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물줄기를 터야 막힌 흐름이 살아나고, 지방도 살아날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특성화된 교육을 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분산됩니다. 학교의 책임도 있습니다. 틀에 갇힌 커리큘럼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커리큘럼과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될 때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재능과 기술,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주면 그 분야 전문가가 돼서 20대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욱 창의적인 교육으로 발전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행복하게 다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육과 말씀을 교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국가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보고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종교는 교회 뿐입니다. 교회만이 저출산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훈 위임목사

주제 강의 2

대한민국 인구문제와 교회 차원의 문제 해결 방향

280조 원. 지금까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한 예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도 출산율이 0.78%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가 저출산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현장을 몰라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출산율이 4.5%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0.78%로 줄었습니다. OECD 국가 출산율이 1.6%인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 22:17). 많은 자손이 복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교육에서 먼저 찾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자는 게 현실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합시켜서 교육 소비자가 원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한다면 비싼 과외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낙태 문제입니다. 낙태되는 태아와

신생아 수가 같습니다. 낙태가 줄어들면 출산율이 오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자기결정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태하면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자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궁은 생명을 키우는 임시거처이기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동성애 문제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지만, 가치 있는 인권과 가치 없는 인권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녀 출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저출산의 요인입니다. 신생아 유기 문제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

은 미혼모들이 ‘베이비 박스’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베이비 박스에서 아이를 입양시키기가 정말 힘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됩니다. 해외가 아닌 국내 입양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다음은 미숙아 문제입니다. 미숙아들을 살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숙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인큐베이터가 굉장히 비싸고, 수입품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숙아들이 살아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철 장로
(OCC공동체, 하나로 의료재단 명예원장)

교회적 실천방안에 대한 리더십과 패널토의(사회: 이인용 장로, 패널: 이재훈 위임목사, 이철 장로, 민준호 대표, 하선희 집사, 최성민 목사)

Q: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렇다고 인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본질적인 문제로 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인구문제에 앞서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인구가 많고 적음의 문제도 있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한다면 인구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교가 창조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닙니다. 창조 명령과 이웃사랑의 명령이 이슬람과 유대교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자녀를 낳는 것과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을 통해

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창조 질서와 가정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창조 질서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Q: 사교육 문제도 심각한데 교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가능할까요?
A: 사교육을 대처할 방안이 정말 많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에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인구문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고학력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지식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교회 방과후학교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당진 동일교회 이야기입니다. 방과

후학교에 수백 명이 옵니다. 충남 당진은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 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재능과 지식을 나누는 방과후학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Q: 실제로 부딪히는 사회적인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A: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들을 사용하는 게 실제 어렵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려면 온누리교회를 포함해서 크리스천들이 곳곳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라는 힘든 과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모차도 가져오고, 아이들 울음소리도 들리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예배 말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많은 사람이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현실적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기독교적 대안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아이를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실천할 때 교회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뀔 것입니다.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런 영화 봐도 될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문화를 소비하고, 우리가 생산한 문화를 세상 속에 전파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다양한 세상 문화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화를 가까이하고, 어떤 문화를 멀리해야 할까? 영화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그리스도인은 선정적인 영화를 봐도 될까?’ 혹은 ‘그리스도인은 폭력적인 영화를 봐도 될까?’ 만일 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공통으로 가지는 질문일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은 “음행하는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말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지키라”고 언한다. 10절에서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게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반면 11절 말씀에서는 “교회 속에 그런 문화가 침투하는 것은 분명히 차단하라” 명한다.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은 세상 문화에 매몰되어 방종한 삶을 사는 것과 문자 그대로의 율법적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건강한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기독교 문화분석가 대니얼 스트레인지 교수는 이 균형을 잡아주는 삶의 다림줄(건축물의 수직을 평가하기 위해 무거운 추를 달아 늘어뜨린 줄)로서 종교개혁에서 루터가 외쳤던 다섯 가지 슬로건과 각각의 슬로건에 대해 기준이 될 만한 질문들을 제시했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전제 아래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려고 할 때 1) 왜 모두 이 영화가 좋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사실로 볼 때 그들은 무엇을 중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가? 2) 나는 왜 이 영화를 즐기는가 혹은 왜 이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가? 이 사실로 볼 때 나는 무엇을 중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가? 3) 이 영화 내용이 성경과 비교할 때 어떤가? 성경도 이 영화의 주제를 중요하거나 바람직하게 여기는가? 혹시 메시지가 성경이 아닌 다른 세계관의 큰 이야기(메타네러티브)에서 나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 존재함을 잊지 않는 것이다.”

것은 아닌가?

오직 은혜(Sola Gratia):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해 주신’ 일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1) 영화를 선택할 때 내 본능이 그 영화를 거부하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율법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은혜 때문인가? 2) 어떤 문화를 잘못 소비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은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믿음(Sola Fide):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유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믿음’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수동적으로 소비만 할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능동적으로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세속의 영화에서 기꺼이 즐기는 부분과 어쩔 수 없이 참고 보는 부분이 있는가? 타협이 필요 없는 좋은 것으로만 형성된 문화를 만들어 낼 방법이 있을까? 2) 문화 창출을 위한 나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어 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1) 어떤 측면에서 이 영화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연결되게 하며, 어떤 면에서 단절시키는가? 2) 이 영화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보여주는가? 이 영화를 보는 것이 죄와 부정함에 오염된 것을 인정하거나, 즐기거나, 추구하는 것인가? 이 영화를 즐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나의 태도에 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앞의 네 가지 슬로건을 통합하고 정리해 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 존재함을 잊지 않는 것이다.

요약하면, 문화 소비와 창출에서 위의 다섯 가지 슬로건과 거기에 연결된 질문들을 선택의 다림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그 선택이 확일적일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독특한 기질이 있고, 삶의 기준에 대한 민감성도 다르며, 삶의 배경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 위의 기준에 의해 거부되어야 할 게 분명한 영화지만 때로 복음 전파를 위해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영화 봐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이 영화를 보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라는 반문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세계관을 알아야 하는 이유

세계관이란?

조준목 목사
(온누리세계관학교)

언젠가부터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관이 무엇일까?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포괄적 의미가 있다. 그만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8세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한다. 그의 3대 비판서 중 하나인 〈판단력 비판〉에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했다. 크게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은 듯하다. 칸트는 단 한 번 이 단어를 사용했고, 반복

하지 않았다. 어떤 학자는 칸트가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우연히 만들어 낸 말’이라고 했다. 그 이후 수많은 학자가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세계관을 의미하는 독일어 ‘벨탄사웅(Weltanschauung)’을 직역하면, ‘세계에 대한 직관’이라는 뜻이다. 우주, 신, 인간, 생명 등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셸링은 “세계관 자체가 세계의 실존과 의미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상에는 왜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왜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다. 이를 볼 때 세계관이라는 주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많은 크리스천이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깨닫지 못한 영역도 참 많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다.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잘못된 세계관들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

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셸링이 설명하는 세계관의 특징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세계관은 무의식적 지성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깊이 있게 의식해보지 않았고, 공부해보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지각은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관은 수업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다.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각자의 세계관은 삶의 다양한 환경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등 수 많은 만남 속에서 형성된다. 우리의 세계관을 의식적으로 꺼내 볼 필요가 바로 여기 있다. 모든 것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점검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 시대 세계관의 가장 큰 도전은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세계에 관한 보편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본원적 특징도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는 다른 방식들이 존재할 뿐”이라는 상대주의는 결과적으로 세계관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 또 진리가 아닌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노략질하도록 허용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모든 길이 산 정상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길이 존재하듯 모든 세계관이 옳고, 선한 결과로 인도해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이 오랜 기간 삶의 풍요와 성장을 가져다줬던 성경적 세계관을 버리고, 거짓된 세속의 세계관에 열광하며 따라가고 있다. 인본주의적 세계관,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 다신론과 범신론적 세계관 등 무수히 많은 세계관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을 잠식하고 있다. 많은 크리스천이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영역도 참 많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무의식 속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들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고후 10:5) 것과 같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롬 12:2) 것과 같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진리를 쫓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특별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들

몸과 마음의 건강, 신앙 성장을 한꺼번에!

양지온누리교회 검도부가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

무엇이든 밸런스가 중요하다. 한쪽만 무너져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과 신앙에도 밸런스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여기, 몸과 마음의 건강과 신앙 성장을 한꺼번에 도모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다. 양지온누리교회 검도부다. 검도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함께 성장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하면서 기쁨도 배가 된다. 특별한 공동체 양지온누리교회 검도부를 소개한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양지온누리교회 검도부원들이 합동연무를 하고 있다.

“검도 배우는 시간이 무척 기다려져요”

양지온누리교회 검도부원들의 고백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검도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 신앙이 함께 성장하기 때문이다. 양지온누리교회 검도부원 대부분 한 번도 검을 잡아본 적 없다. 지금도 검을 잡는 게 어색하기만 하지만 검도를 배우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다. 그래서 검도를 배우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양지온누리교회 검도부는 송영찬 팀장이 올해 6월 28일 창설했다. 검도를 활용한 교제와

전도(선교)를 꿈꾸는 송영찬 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경기도검도회’와 ‘대한 검도회’에서 호구를 기증받게 하셨다. 검도부원들마다 사이즈가 다른데도 맞춤 제작한 것처럼 딱 맞았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송석근 목사(양지온누리교회)도 검도부에 참여했다. 송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검도를 배우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다.

양지온누리교회 검도부가 벌써 입소문이 나

서 교회 주변 마을 회장을 비롯한 어르신들도 찾아오신다. 교회에 관심이 없던 이웃들이 검도를 배우려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다.

양지온누리교회 검도부가 인기 있는 이유는 함께 하는 기쁨이 큰 것도 한 몫 한다. 검도부원들에게서 느끼는 가족 같은 편안함이 좋아서 찾는 이들도 많다. 무엇보다 검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검도부 최연소 부원 남궁울 학생(10세)은 “검도는 재미있고, 승급하는 과정이 굉장히 뿌듯하다”고 말했고, 그의

어머니 이선아 성도(양지온누리교회)는 “가족과 함께 수련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유익하다”고 고백했다.

검도가 치유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양지온누리교회 검도부에서 운동하면서 아픈 몸이 회복된 성도가 있다. 박영환 선교사(2000선교본부)는 2019년 뇌출혈이 발생했다. 손을 올리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검도를 배우면서 몸이 조금씩 회복됐다. 손이 올라가고, 검을 휘두르는 것까지 가능해졌다. 박 선교사는 “검도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하게 됐다”고 간증했다.

검도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곳이 또 있다. 대한검도선교회다. 대한검도선교회는 선교지에서 검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토) 대한검도선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이날 여성민 목사(광명공동체)가 설교했는데, “검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해져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양지온누리교회 검도부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송영찬 팀장(010-9274-2564)에게 문의하면 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도 검도를 배울 수 있다. 여성민 목사 이메일(ysm@onnuri.org)로 문의하면 된다.

함께 웃고, 울고, 성장하는 젊은 부부 공동체!

교회에 안개 성도(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 생활하는 성도)가 많다. 특히 결혼하고 공동체와 순예배에 정착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다. 청년공동체에서 성인공동체로 이동하면서 느끼는 막연한 불안함과 부담감이 공동체 소속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다.

안개 성도를 품는 ‘젊은 부부 공동체’가 있다. 강남D공동체, 서초D공동체, 푸른누리공동체 그 주인공이다. 이들 공동체가 오는 11월 18일(토)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젊은 부부 초청 집회 ‘동행’을 개최한다. 젊은 부부들이 성인공동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경적 가정관을 세우도록 돕는 축복의 장(場)이다.

젊은 부부 공동체의 필요성과 유익이 궁금했다. 김건백 순장(강남D공동체), 이병후 총무(푸른누리공동체), 김현정 자매(서초D공동체)가 그 이유를 생생하게 들려줬다. 이들이 소개하는 젊은 부부 공동체는 한 마디로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하는 공동체다.

김건백 순장이 안개 성도로 지낸 시간을 이야기하며 젊은 부부들의 어려움을 털어냈다.

“청년 시절에는 임원 활동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청년부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같은 청년이지만 목표가 달라졌다고 할까요? 연애와 결혼, 자기 계발이 미혼 청년들의 주요 관



또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하는 '젊은 부부 공동체'(사진은 서초D공동체).

심사라면, 결혼한 청년들은 가정과 출산, 자녀 양육 등으로 관심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나누는 이야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성인공동체로 올라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성인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과 나이 차가 많으면 청년부에서 느꼈던 단절감을 또다시 느낄 것 같아서 걱정했습니다. 게다가 젊은 부부가 공동체 사역을 도맡아 하지 않을까 괜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만 드리는 안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병후 총무도 결혼과 출산 전후로 비슷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10여 년 전 푸른누리공동체를 만났다. 그곳에서 함께 신앙을 키워가는 좋은 같은 세대 동역자들을 만났다.

“저희 가정이 성인공동체로 이동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기에 푸른누리공동체가 신설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여러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그야말로 ‘젊은 부부 맞춤형 공동체’였습니다. 푸른누리공동체에서 만난 같은 세대 성도들과 함께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훈련을 받고,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문제와 직장 문제 등 비슷한 생애 주기의 고민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

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김현정 자매는 서초D공동체에서 그 좋은 젊은 부부 공동체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서초D공동체에서 젊은 부부들과 교제하면서 출산과 육아, 직장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래라 그런지 비슷한 고민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 순에서 다들 임신과 출산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세 가정이나 임신을 했습니다. 공동체 목사님과 리더십에게 큰 배려와 관심, 사랑을 받는 것도 젊은 부부 공동체의 큰 장점입니다.”

김건백 순장이 젊은 부부들을 초대했다.

“젊은 부부 공동체에서 젊은 부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장모님, 권사님들이 젊은 부부 가정의 아이들을 손주처럼 예뻐하십니다. 비슷한 신앙 고민이나 삶의 문제를 나누는 또래가 많은 것도 큰 축복입니다. 성인공동체로 이동하기 두려워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다면 고민 말고 젊은 부부 공동체로 오십시오. 함께 신앙생활 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홍하영 기자 hha@onnuri.org

문의: 강남D공동체(010-9530-8710)
서초D공동체(010-2545-0210)
푸른누리공동체(010-9087-0670)

맛있는 말씀 해설

“...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물질’이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돈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할 가족과 친구 사이에 금이 가고 원수가 되기도 한다. 한때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 이처럼 돈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도구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다. 첫째,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노예는 주인이 가진 소유의 일부로 여겨졌다. 그에게는 오로지 충성과 맹종만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당시에 한 노예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노예는 마음이 가는 주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 주인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만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

이 입사한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게도 충성을 다하며 일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인은 한 주인만 섬겨야 한다. 여기서 하인은 믿음의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비유한다. 그런데 왜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과 재물을 두었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동서고금

과 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것이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물질의 부를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부른다. 바리새인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사회적 특권을 이용해

사용해야 할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재물의 요구가 서로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적인 자기헌신과 자기희생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재물은 자기주장과 자기 확대를 요구한다. 바리새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내게 재물은 어떤 의미인지를 말이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재물의 요구가 서로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를 막론하고 인간이 돈보다 좋아하고 추앙하는 게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물질 앞에서라면 무엇이든 할 정도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의 실상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서 재물을 축적하는 자들이 많았고,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여겼다.

<누가복음> 저자는 16장 19절 이하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꼬집는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든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하게 소유하고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지혜의 교훈에 순종하는 성도

11월 6~12일

<잠언> 12:17~15:33



목상포인트 1: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교훈과 훈계는 위험을 피하고 바른 길로 행하는 지혜를 제공한다. 반면 교훈을 듣지 않는 자는 자기 주관과 감정으로 말하고 행하기에 재앙을

맞이한다. 교훈과 훈계를 달게 받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묵상하자.

▶지혜로운 혀와 진실한 입술은 양약과 같고 영원히 보존된다. 그러나 거짓 혀는 잠깐 있을 뿐이며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부지런한 자는 남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복과 화를 받는다. 쉽게 얻은 재물은 줄어 가고, 수고해 얻은 재물은 늘어난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으로 사망에서 끌어내 선한 길로 인도한다.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하고, 훈계를 저버리면 궁핍과 부끄러움을 당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는다. 선한 자는 자손에게 산업을 물려주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목상포인트 2: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것은 결국에 드러나게 된다. 명철한 자의 마음속 지혜와 미련한 자의 마음속 악함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대하는 태도로 드러난다. 성도가 추구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나, 미련한 여인은 집을 무너뜨린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패역한 자는 그분을 경멸한다.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입으로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신을 지킨다.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지만, 그 끝이 사망의 길에 이끌리는 자는 행동을 삼간다. 속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미련한 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명철한 자의 지혜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의를 추구하는 나라는 영광을 받지만, 죄가 가득한 나라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목상포인트 3: 지혜로운 자의 삶은 ‘성숙한 언어생활과 대인 관계’로 나타난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박할지라도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 다른 사람 말을 겸손히 경청하고, 서로 의논하며, 일을 성취해 간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뉘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묵상하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키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나님은 악인의 길과 제사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자여도 번뇌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나 지락(조언자)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지혜의 훈계며, 겸손함은 준귀의 길잡이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 하고 유순하게 말한다. 쉽게 노하며 과격한 말로 내 주장을 내세웠던 일을 회개하자. 입술을 지켜야 할 일, 먼저 경청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물질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물질이 부족해도 감사함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자.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를 추구하기로 다짐하자. ▶지혜 있는 자는 교훈과 훈계를 달게 받는다. ‘생명의 샘’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QT를 통해 내게 주시는 교훈과 훈계를 달게 받자. ▶공의로운 통치가 나라를 바르게 세운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영역에서 공의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 없는 부유한 가정은 아니라 소박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힘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아랍어예배를 위해서!

안산M센터 아랍어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랍어예배에는 이집트와 모로코에서 온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아랍인을 3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주자와 아랍 여성들을 신방하고, 교제할 분들도 필요합니다. 아랍인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섬길 봉사자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랍어예배를 드릴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매주 영적 전쟁 중입니다. 사탄이 아랍인들을 섬기는 봉사자들을 흠으려고 하고, 이곳에서 구원이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아랍어예배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랍어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산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을 전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랍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산에 아랍인들을 위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아랍어예배 형제자매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신지환 형제(안산M센터)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신앙교육여행’

115년 채우면서 버티고 견디며...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산교회’가 있다.

비금덕산교회 역사는 1908년 비금도 출신 강낙언이 남장로교 선교사 맹현리(Henry D.McCallie)와 함께 10시간이 넘는 뱃길을 뚫고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됐다. 그 이후 선교사들의 지도를 받은 조사들(목사나 선교사를 도와 전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파송돼 어엿한 교회의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천막을 치고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모여 4칸의 예배 처소를 마련한 일을 기점으로, 1911년에는 감격적인 첫 세례와 첫 성찬식의 기쁨을 맛봤다. 목포 양동교회에서 울린 종소리에 은혜받은 김동신이 3년 동안 점심을 금식하면서 모든 양식을 팔아 평양에서 늦종을 구매해 비금덕산교회의 종탑을 세웠다. 예배시간을 알림과 동시에 비금도의 시계 역할을 한 것이 지금도 교회

의 자랑이다(한국기독교사적 제39호).

비금덕산교회는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하면서 비금도를 비롯한 주변 섬들에 신앙의 바람을 조용히 일으켰다. 무엇보다 이 교회의 특별함은 결혼 혹은 이사 등 여러 이유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할 때, 자신들이 배운 신앙도 함께 가져가 그곳에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는 일을 주도했다는 데 있다. 그때마다 비금덕산교회가 힘을 다해 도왔다. 그렇게 설립된 교회들이 또 새로운 교회를 낳았고, 외면받던 도서 지역에 시나브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이 역사를 보면 비금덕산교회가 도서 지역의 ‘어머니교회’라는 특별함을 지녔다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비금덕산교회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1938년이 되어서야 초대 목사님을 모실 수 있었다(6대 교역자, 초대 목사 김종인).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교회당 일부를 일본군이 주둔해 사용하게 되는 때를 견뎌야 했다.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희미하게나마 신앙의 끈을 이어온 교회가 해방을 통해 교회를 재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같았는데, 섬이라는 특수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목회자 없는 시대를 거쳐야만 했다. 그 이후 교회는 1956년부터 1985년 목사를 청빙

할 수 있을 때까지 전도사님들의 수고와 애씀의 시대를 거쳤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비금덕산교회는 대리당회장을 모시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성가대, 주일학교, 문학의 밤 등 다양한 신앙 활동을 여느 교회 못지않게 이어오며 비금도의 교육, 문화 등에서 교회가 중심 역할을 해냈다.

차츰 교회가 든든히 서 가스가 싶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1977년, 아이들의 불장난) 교회당이 전소되는 낙심을 겪기도 하고, 교회 분규를 회복하지 못하고 갈라지는 아픈 상처도 갖고 있다. 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처럼 일어났다. 하나님이 거친 손, 주름이 많은 얼굴, 군데군데 큰 상처를 지닌 듯한 비금덕산교회를 매번 새롭게 일으키셨다. 필요한 때 헌신할 일꾼들을 보내 일하게 하시고, 교회가 힘을 다해 지역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 오늘날 비금덕산교회는 분명한 역사 의식과 선교 열정을 품은 황규석 목사를 만나 신안의 어머니교회로서 어떻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도약해야 할지 기도하며 하나씩 펼쳐보는 중이다.

“저게 저절로 붙어질 리는 없다 / 저 안에 태풍 몇 개 / 저 안에 천둥 몇 개 / 저 안에 벼락 몇 개 /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 있어서 / 붙게 익히는 것일 게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 한 구절이다. 이 구절이 비금덕산교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교회는 그냥 시간만 채운 게 아니다. 그 안에 무수한 눈물과 아픔, 굴곡과 위기, 기쁨과 감격을 오롯이 품고 차곡차곡 115년을 채우면서 버티고 견디며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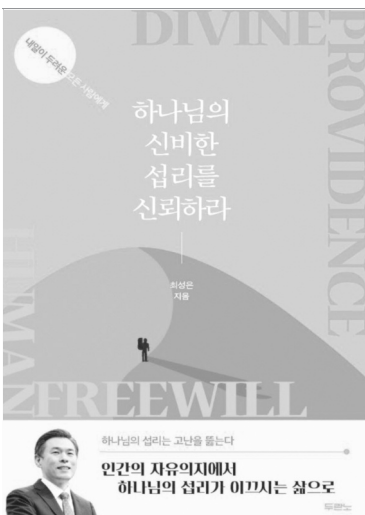
11월, 완연한 가을이다. 더 추워지기 전에 배를 타고 꼭 비금도를 찾아 비금덕산교회 앞에 서 보는 게 어떨까? 많은 이가 주목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섬에서 묵묵히 115년 역사를 이뤄낸 비금덕산교회 이야기를 만나보자. 오랜 세월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 신앙교육여행지 ‘비금덕산교회’ 전경.

두란노 신간

고난을 뚫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신뢰하라〉
최성은 저 | 두란노 | 14,000원

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켰다.

진정한 형통은 환경에 있지 않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삶이다.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면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시는 삶을 원하는 성도, 말씀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형통한 삶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오늘의 hymn(Hymn)
‘찬송가, 찬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길을 찾는 너를 위해’
위클레시아 곡

때문이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소망하게 된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

찬양 ‘길을 찾는 너를 위해’를 진로를 정하고 준비하는 학생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운 청년들에게 특히 추천한다. 이 찬양은 하단 QR 코드와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찬양 듣기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소비 편’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물건을 사고, 쓰고, 버리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를 막는 좋은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1만 5,680t, 연간 570만t에 달한다. 한 사람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면 연간 온실가스 36.2kg를 줄일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최소한의 식재료 구입하기, 유통기한 고려해서 구입하기, 남은 음식 다화용 용기에 포장해 오기 등이 있다.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좋은 소비 습관이다. 중고 제품을 구매하면 제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포장재와 완충재 등도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재활용 제품 이용하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발급받기,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이용하기 등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좋은 소비다.

‘부채탈출 119’ 참가자 모집

11월 5일부터 선착순 50명, 홈페이지 신청

사회선교본부에서 건전한 재정 정립이 절실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부채탈출 119’를 실시한다. ‘부채탈출 119’는 재정상담 및 법률상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재정 설계와 부채 해결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나 온누리교회 성도가 추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11월 5일(일)부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js003225@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50명 마감한다. 문의: 010-8543-4645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3 차세대 독후감 대회’

12월 3일까지 ‘창조’ 관련 도서나 <천로역정>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2023 차세대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12월 3일(일)까지 ‘창조’ 관련 도서나 <천로역정>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온누리교회 도서관(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403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도서는 집에 있는 책이나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면 된다. ‘2023 차세대 독후감 대회’ 참가

대상은 온누리교회 차세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소속 어린이들이다. 독후감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유년부 3장 이상, 초등부 5장 이상, 소년부 7장 이상이어야 한다. 200자 원고지는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제공한다. 12월 17일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문의: 010-8953-1628

탁구인 맞춤형전도집회 ‘핑퐁 in Love’

11월 18일 오후 3시 양재 하용조 기념 채플

온누리탁구선교회에서 탁구인 맞춤형전도집회 ‘핑퐁 in Love’를 개최한다. 11월 18일(토) 오후 3시 양재 온누리교회 하용조 기념 채플(4층)에서 열린다. 탁구인 맞춤형전도집회 ‘핑퐁 in

Love’는 1부 탁구대회, 2부 식사 및 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가 설교하고, CRUX, 양영자 선교사(전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 감독), 가수 이무송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핑퐁 in Love’ 또는 전화(010-8761-4178)로 문의하면 된다. 탁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2인 3만 원이다. 문의: 010-8761-4178

NGO 더멋진세상, ‘성탄절 선물 보내기’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에서 11월까지 ‘성탄절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한다. 부르키나파소 국생마을 어린이 500명과 르완다 ECD유치원 어린이 180명에게 방한용품, 티셔츠, 어린이성경, 동화책, 간식 등을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NGO 더멋진세상 ‘성탄절 선물 보내기’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09-09905 (사)더멋진세상)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문의: 02-2271-2246

11월 화요성령집회 ‘인생수업’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11월 화요성령집회 ‘인생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화요성령집회 ‘인생수업’에서는 11월 7일 이서진 목사 ‘순종 끝에

찾아온 번아웃’ (왕상 19:1~18), 14일 최성민 목사 ‘감당할 수 없는 절망’ (대하 20:1~19), 21일 정한호 목사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눅 6:27~35), 28일 최성민 목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유혹’ (삼상 24:1~7)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129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129기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11월 7일(화)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이나 어머니학교 홈페이지(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129기 두란노어머니학교는 1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점심이 제공된다. 회비는 15만 원. 전정신 성도(강남C공동체)는 “두란노어머니학교에 참여하면서 내가 변하고, 가족이 변화됐다”고 고백했다. 문의: 02-2182-9114

말씀 해설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기도’ 지면에서는 성도들이 평소 궁금해하거나 어려워하는 말씀에 대한 해설과 중보기도 제목을 함께 나눈다.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daa2@onnuri.org)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꼭 기록해야 한다. 중보기도 제목은 익명으로 보내도 된다. 문의: 02-6959-0001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갈렙선교학교 ‘홈커밍데이’ 개최

갈렙선교학교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 지난 10월 28일(토)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렸다. 갈렙선교학교 훈련생, 내외빈, 스태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갈렙선교학교 홈커밍데이는 경배와 찬양, 윤동주 교장 기도, 김창욱 전도사 설교, 저녁 만찬, 스트롱아프리카 이주민 공연, 토크쇼, 비전터치, 조별 나눔, 김홍주 목사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진 헬퍼(갈렙선교학교)는 “갈렙선교학교 수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동역자로 세워져 나가는 훈련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7회 한국글로벌선교리더십모임

11월 7~10일 마임비전빌리지

제7회 한국글로벌선교리더십모임(KGMLF, Korean Global Mission Leaders Forum)이 열린다. 11월 7일(화)부터 10일(금) 마임비전빌리지(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용은길 28)에서 ‘소망의 복음: 환경재해와 인적

재난에 대한 선교적 대응’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글로벌선교리더십모임(KGMLF)은 개회예배, 주제 발표, 조별 토의, 성경공부, 워크숍, 조별 보고, 폐회예배, 감사회 등이 이어진다. 문의: 02-795-9085

87회 성령수련회 참가자 모집

11월 18일 Acts29비전빌리지

87회 성령수련회가 11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Acts29 비전빌리지 1층 시안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11월 15일(수)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령수련회에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7197-2812

257기 결혼예비학교 개강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257기 결혼예비학교가 개강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1월 7일(화) 오전 10시부터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예비부와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강의 영상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2강씩 업로드된다. 게시일로부터 10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PDF 파

일로 강의안도 제공한다. 결혼예비학교에서는 유수열 강사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 황규복, 김숙경 강사 ‘너와나, 다름의 축복’, 김의수 센터장 ‘신혼, 재정의 첫걸음’, 이범석, 이연숙 강사 ‘하나님의 비밀, 성’, 김숙경 소장 ‘건강한 자아상 만들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 김다에 기자 daa2@onnuri.org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아제르바이잔(아사모)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줌터
문의: 010-9976-3100

인도선교사 기도모임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2735-3807

몽골(아몽) 기도모임
온라인: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대면: 매달 1회 오후 7시 30분
문의: 010-9417-0759

방글라데시 기도모임
매달 셋째 주일 오후 4시
문의: 010-5071-0144

일본 기도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신관 302호
문의: 010-9349-5631

소아시아(튀르키예) 기도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5225-5522

티사모(튀르키예)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Acts29홀
문의: 권역별 기도팀

살롬 이스라엘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시온홀
문의: 010-2930-2322

인도 기도모임
격주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4516-4710

파키스탄 기도모임
매달 둘째, 넷째 주 토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3212-6902

아랍과 페르시아 기도모임
분기별 1회 주일 오후 4시 선교관 202호
문의: 010-3259-3561

다문화 차세대선교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JDS홀
문의: 010-6422-8376

베트남 기도모임
매달 1회 온라인
문의: 010-2944-8123

장로칼럼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묵상했다. 이제껏 살아온 날들의 궤적을 떠올리며 열심히 살아온 이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깊이 숙고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가치를 찾아 살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치(價值,value)’는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쓸모와 보람이고, ‘성숙(成熟 maturation)’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 어른스럽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신앙의 성숙’을 의미한다. 우리는 누구나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나이 들며, 성숙한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한다. 물건은 오래되면 쓸모가 없어지지만, 그를 통해 얻는 보람이 커진다. 낡은 물건이라도 보람이 커지면 가치를 잃지 않는다. 나 이 들어 세상에서 쓸모가 적을지라도 보람이 있다면 그 가치가 클 것이다.

존 러스킨은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참 어려운 일이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기보다 남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았는지, 나의 기준보다 남의 눈의 척도를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더 큰 차와 더 넓은 집으로 타인의 시선을 끌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누리는 만족한 삶이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팽배해 있지 않은지 늘 고민하게 된다.

하나님은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어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뽑을 때(추수할 때)가 있다”고 하셨다. ‘추수할 때’는 알이 여물어진 상태, 보기에 탐스럽고 그 생명의 풍부함을 나타낼 때요, 한 생명을 잉태해서 낳고 길러 열매를 맺게 된 흡족한 마음이 들 때일 것이다. 젊을 때는 오직 시선이 세상에 머물고, 중년에 접어들면 세상으로 향했던 시선이 덧없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 중년에 잘 늙어간다는 것을 느낀다면, 노년의 때는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노년의 때 ‘성숙(成熟)’이 아닌 ‘성공(成功)’에 더 집착한다면 덧없는 인생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 말고 그 무엇이 있을까?

한경직 목사님은 모자원과 고아원을 세워 그들을 돌보고, 국가의 변명과 미래를 위해 교회의 역할을 실천했다. 목회를 은퇴한 다음에는 남한산성 작은 거처에서 살다가 남긴 것은 방 한 칸에 40년 된 침대와 양복 한 벌, 안경이 전부였다. 한경직 목사님은 “물려줄 유산은 없고, 믿음과 사랑을 남긴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다”라고 하셨다.

교회에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참 많다. 그들은 겸손해서 타인과의 관계가 좋고, 매사 섬세해서 예술 감각이나 창의력이 풍부하다. 고난을 차분하게 견디고 회복력도 빠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인정이 많으며 공감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안다. 그런 신앙인 앞에서는 고개를 절로 숙이게 된다.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라 더욱 성숙해갈 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며 이웃에게 본이 되고, 덕을 베푸는 참다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으로 무엇이 인생의 참된 가치인지 주께 길을 물으며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믿음은 반응이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특히 마지막 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와! 보기 좋구나”라며 감탄하셨다. 첫 번째 사람 아담도 하나님께 감탄하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도, 그의 앞에 배필 하와를 인도해 줬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했다. 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진 순간부터는 감탄을 잃고 말았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몸으로 반응했다. 그런데 광야에 물이 없거나 결핍이 생기면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했다.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만나’라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며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적이 일상이 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내 감탄이 사라진다.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하니”(민 11:6).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투정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감격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어린 손자는 감탄의 대상이다. 첫 손자가 걷기 시작할 즈음, 손자가 시계를 가리키며 “이게 뭐야?”라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이 손자에게 “시계”라고 답해주었다. 손자도 “찌계”라고 할아버지의 말을 따라 하면서 즐거워

했다. 손자는 보이는 것마다 경이롭고 궁금했는지 묻고 또 물었다. 무뚝뚝한 성격의 남편이 경탄하며 대답하고, 손자에게 되물곤 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주거나 받거나 리액션을 잘도 교환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면 반응을 잘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기는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울음으로 반응한다. 자신의 탄생을 온몸으로 알리는 아기의 울음에 부모의 감탄이 최고조에 이른다. 한 명의 크리스천이 영적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신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최악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지겨워하기도 한다. 나는 ‘태양도 맨날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 일상이 지겹지 않을까?’ 잠시 생각했다. 그런데 해는 조금도 지겨운 모습이 아니라 늘 찬란하게 비추고 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시 19:5a).

해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신 것을 알기에 늘 새신랑처럼 싱글벙글 반응하며 운행함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다. 물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지만 말이다.

우리에게는 겉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 아무리 건강해도 겉사람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낡아지고 빠격거린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셨다. 나도 80세를 바라보는 나이로 아픈 데가 많다. 그러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진다고 믿고 아픈 것에 매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평생 현역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복음 전달자로 살고 싶어진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감탄하며 사랑으로 반응하리라!

신앙에세이



신동식 목사
(평택온누리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느껴지는 특별한 날이 있다.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다가 작은 실전을 하나 했던 적이 있다. 그 순간 그날 아침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갖고 대화했던 일이 떠올랐다.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졌다.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느껴지니까 나도 행복했다. 일상에서 이러한 소소한 일에도 큰 은혜를 받는다.

어느 날, 자동차 뒷문을 여는데 껌 종이 하나가 바람에 날아갔다. 굴러가는 껌 종이를 재빠르게 잡았다. 껌 종이를 주머니에 넣는데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떠올랐다. 묵상한 말씀이

껌 종이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가 됐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성령 충만함이다. 비록 작은 껌 종이 하나 주머니에 넣은 것이지만, 아침에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게 작은 행동으로 연결될 때 특별한 감동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진다. 화려한 적용과 실전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거창한 목표는 계획조차 두렵지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기뻐하게 하는 작은 행동이 큰 기쁨이 된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마다 읽는 책이 있다. 로렌스 형제(Brother Lawrence)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이

책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한마디로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일상생활과 믿음 생활을 구분하지 않는다. 로렌스 형제는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다. 일을 마치면 부엌에 앞드려 그 일을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영적 민감함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과 세심한 주의가 만든다.

로렌스 형제의 “나는 앞으로 영원히 하게 될 일을 행하고 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를 돌아보게 한다. 나에게 “지금 하는 일과 계획은 앞으로 영원히 하게 될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매 순간 하나님을 생

각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계속 연습해야 한다”고 답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니엘이 깨끗해지기로 결심하고, 행동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용기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공활을 주셨다. 은혜와 공활이 학문과 재주,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으로 연결돼 다니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결심하고 작은 것이라도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은혜와 공활을 베푸신다.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큐티(Quiet time)하면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진다. 아침에 하나님과 나눈 이야기 중에서 생각나는 것을 용기 내 조금씩 실천한다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온누리선교재단 재정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근무)
자격: 2년제 이상, 기업회계 경력 3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온누리선교재단 재산종합, 영업배상, 가스배상 전속계약업체 선정
기간: 2024년 1월 1일~2025년 1월 1일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대상: 입찰 물건 72건
방법: 일반경쟁입찰
자격: 지급여력비율 180% 이상인 업체
절차: 마감 11월 17일, 결과 11월 21일
문의: 02-3215-3136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 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라방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통역자 모집
모집: 차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와이무슬림 12기
일시: 11월 4일~12월 9일 매주 토 5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신청: 아이스쿨
회비: 5만 원
문의: 010-5557-8924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막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막도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INTERNATIONAL NGO

더 멋진 세상
better world

성탄절 선물 보내기 캠페인

기쁜 소식이 담긴 특별한 선물, 지금부터 준비해야 성탄절에 받아볼 수 있어요~

부르키나파소 국생(Kougsin)마을을 섬기고 있는 H목사님은 이번 성탄절에 500명의 어린이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 중입니다. **르완다**의 어린이들에게는 성탄절을 맞아 부모님과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동화책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지금 보내주세요.

지원 대상

부르키나파소 국생마을 어린이 500명,
르완다 ECD어린이 180명

성탄절 선물 구성

방한용품, 티셔츠, 어린이 성경,
동화책, 간식 등

후원 기간 10월~11월

✿ 2개월 간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성탄절에 맞춰 현지에 전달되도록 준비합니다.

캠페인 종료 후 모인 후원금은 다음세대 희망심기를 위해 사용됩니다.



홈페이지 betterworld.or.kr 후원 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9905 (사)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6 (내선 0번)

더멋진세상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는 국제개발 NGO입니다.